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 (27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제주도 ·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위기 극복 협력
(제주 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호소문 발표)
- [통합] 제주도, 신천지 추가명단 확보...오늘 중 조사 완료한다
- 호흡기질환 환자 전용진료 ‘국민안심병원’ 본격 가동
- 서한문 발송 “도민 안전 위한 불편 감수 감사합니다”
- “우리는 한가족”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예방 강화
- SNS 응원메시지 릴레이 캠페인 전개
- ‘고강도 방역’ 으로 안전 제주관광 지킨다
- 도, 정보접근 취약계층 시각, 청각언어 장애인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홍보 강화

2020. 2. 2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2.28.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동향('20.2.28. 09시 기준)

○ (전국) 확진환자 2,022명 (26명 격리해제, 13명 사망)

○ (제주) 확진환자 2명

< 국내 발생동향('20.2.28. 09시 기준) >

단위: 명

구분	확진환자(누계)				검사현황(누계)			자가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도	2	0	2	0	789	196	593	160
일일 증감	0	0	0	0	+94	+49	+45	+2
전국	2,022	26	1,983	13	68,918	24,751	44,167	(미공개)

□ 입도객 현황('20.2.27.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3,701명

- 총 입도객 수는 작년 같은 날 대비 66.1% 감소(40,431명→13,701), 전일 대비 4.4% 감소(14,329명→13,701)
- 내국인 13,318명(97.2%), 외국인 383명(2.8%)이 제주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24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6.3% 차지

< 입도객 현황('20.2.27. 기준) >

단위: 명

구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3,701	13,318	383	24	70	289
	2019년	40,431	36,790	3,641	2,268	186	1,187
	증감률	△66.1%	△63.8%	△89.5%	△98.9%	△62.4%	△75.7%
누계* (2.23.~)	2020년	81,219	78,750	2,469	44	348	2,077
	2019년	205,555	183,737	21,818	12,752	1,268	7,798
	증감률	△60.5%	△57.1%	△88.7%	△99.7%	△72.6%	△73.4%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일로부터 누계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2. 28.(금)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비상경제 지 원 단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비상경제지원단장	현대성	710-2100
		비상경제상황실장	고경민	710-3950
동영상 (웹하드): 있음 ☐ 없음 ☒		사진 : 있음 ☐ 없음 ☒		후속자료: 없음

제주도 ·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위기 극복 협력

- 제주도 영세상인 임대료 부담 경감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감면 -
-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 발표 -
- 행사 연기 · 취소에 따른 위약금 최소화,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약속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 대상은 지하상가, 시장,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30%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 (즉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대부료) 30% 감면

- 적용대상: 상가, 관광지, 구내식당,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

※ 415개소(지하상가 300, 상가 14, 그 외 사무실 101)

- 감면기간: 2020. 3. 9~ 12.31(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분에 한함)

- 감 면 률: 30퍼센트를 일률적용(※약 4.2억원 감면 예상)

☞ 1년 임대료 17억원(지하상가 10억원, 그 외 기타 7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향후계획) 정부 정책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 추진

- 현행 사용요율(대부요율) 5퍼센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1퍼센트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한시적 적용)

※ 요율 인하 시 현행기준 80퍼센트 감면(약 13.6억원 감면 예상)

- 제주도는 감면조치를 통해 415개소, 4.2억원이 감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제주도 및 양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임대인에 대해서도 동참할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도내에서는 결혼식, 돌잔치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기·취소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 또한 행사 취소에 따른 과다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한편 소비 둔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가중되어 왔다.
- 이에 민간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특히,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회장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에서는 2. 27일 자체 회의를 갖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 협의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민관 합동노력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 호소문에는 제주경제의 주춧돌인 도민·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여 산업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담겨있다.
- 특히 도내 경제주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에 상생과 배려로 어려운 제주경제 여건을 딛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는 위약금 과다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결혼식장이나 호텔, 요식업체 등이 도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제주도는 행정이 민간 부문의 계약문제에 대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과 권고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부터 때를 놓치지 말고 민관이 합동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은 건물주들의 노력에 기초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생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도내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전액환불 방침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참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 제주도와 협의회의 협력노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과 배려의 성과에 마중물 역할 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호소문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 소 문

1. 상생과 배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침체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관광과 소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제주경제가 IMF 위기 당시에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에 짓눌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도민의 삶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제주상공인들은 제주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았고, 제주상공회의소는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제주경제의 주체가 합심해 ‘상생과 배려’의 자세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율실천 운동’을 제안하며 도내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 드립니다.

2. 위약금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안 받기 또는 위약금 최소화를 위한상공인들의 자율적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주상공인들은 행사취소 위약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율실천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3. 임대료 인하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가 임대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권도 자신들의 소유건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에게 각종 금융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재산세 한시적 인하 등 세제 혜택 등의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상생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은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앞장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자율실천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4.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8,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발 빠르게 특별지원해 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율실천 운동’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경제심리 안정과 소비촉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주상공인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생산 차질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경제회복에 진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철통방역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주상공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자세로 도정과 적극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제품 애용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상생과 배려’의 제주정신은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0. 2. 27.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형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변민수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장태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공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장	임민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안귀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부동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
구좌농공단지협의회	회장	강영근
금능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오충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변대근
대정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회장	김광익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성공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현동수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김창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황선태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조학봉
Sh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본부장	장문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도원
제주ICT기업협회	회장	오태헌
제주도가스판매협동조합	이사장	고남영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성호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대권
제주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구
제주디자인기업협회	회장	현승민
제주마SSIP	회장	문영섭
제주바이오기업협회	회장	김영선
제주은행	은행장	서현주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한용선
제주애기업협의회	회장	김영채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장	문성윤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회장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애복
제주특별자치도 수출협회	회장	현광희
제주특별자치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상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강태식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강동훈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성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장	고영철
제주화장품기업협회	회장	김미량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회장	박광열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찬민
토평공업단지협의회	회장	고화백
한국LPG산업협회 제주협회	회장	송재철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	회장	양경홍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현진성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김창수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김명효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장	고영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회장	임상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지명식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공석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문관영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김의근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2. 28.(금)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 없음 ☒		사진 : 있음 ☐ 없음 ☒		후속자료: 없음

[통합] 제주도, 신천지 추가명단 확보...오늘 중 조사완료한다

- 중대본 27일 밤 11시30분 도내 교육생 102명 명단 통보해 전달 받아 -
- 도, 전체 646명 중 634명 전화확인 완료, 유증상자 36명 전원 음성판정 -
- 나머지 미응답자 12명 정부(보건복지부장관)에 위치확인 요청 -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밤 11시 30분경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부터 도내 신천지 교육생 102명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이 명단을 바탕으로 ▲일제 확인전화를 하고 ▲이후 유증상자 확인 및 검사를 실시해 ▲문진결과 등 1차 확인작업을 오늘 중으로 완료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 앞서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부터 제공받은 646명 도내 신천지 교인 중 지난 27일 오후까지 유증상자 총 36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음성으로 판명된 36인을 포함한 연락이 된 응답자 634명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 하루 2회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 감시를 시작했다.

- 현재까지 전화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천지 교인은 모두 12명으로, 신천지 측에서는 이 중 3명은 도외 거주자(국외 포함), 9명은 도내 거주자라고 협조과정에서 밝혔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신천지 교인 9명의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키로 했고 도외 거주(국외 포함)자로 주장된 3명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 또한 제주도는 타시도의 전수조사 결과를 신속히 파악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도표 참조

※ 27일(목) 오후 9시 35분 기준 신천지 교인 추가 조사 현황

1일차(2.26)		증 감	2일차(2.27)
총 계	646	0	646
응답자	603	+31	634
(미연결자)	43	-31	12 (도내 9명 소재파악 추진, 신천지 관계자 확인 결과 3명은 도외·해외 거주, 지속 확인 추진)
응답자 합계	603	31	634
도 내	563	+26	589
도 외	40	+5	45
도내 유증상자	34	+2 (거동불능환자 1인 제외, 신규 3인)	36
검사 결과			음성 36 (21:35 기준)

호흡기질환 환자 전용진료 ‘국민안심병원’ 본격 가동

- 27일 제주대병원 · 제주한라병원 지정...28일 중앙병원 · 한마음병원 추가 신청 -
- 외래진료 구역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 ·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병 불안 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종합병원 2개소*에 대해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자가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되는 병원으로,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 입원)을 운영한다.
- 의료기관 구조 및 운영 등 국민안심병원 지정요건(A,B)**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된 병원은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대한병원협회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응전략 후속조치에 따라 25일 도내 6개 종합병원에 국민안심병원 신청 안내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자가 직접 각 병원을 방문하여 국민안심병원 신청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 그 결과 27일 제주대학교 병원(B유형), 제주한라병원(B유형)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 이어 28일에는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이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위해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 지정된 도내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입원 진료가 이뤄진다.
-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도 비 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되며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기 위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 내에서 진행된다.
-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감염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고강도의 병원 내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나머지 종합병원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국민안심병원을 통하여 도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710-2910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검사과 고신호 과장 064-710-7510

참고 1

국민안심병원 환자 진료 흐름도



①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 **(대상자 조회)** 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 **(면회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 **(의료진 방호)**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② 국민안심병원 B 요건

-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 **(입원실·중환자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 되도록 조치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 ①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 ②확진환자와 접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③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자, ④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⑤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도민 안전 위한 불편 감수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01명에 위로서한문 발송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인 101명에게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위로 서한문을 28일 발송했다.
- 제주도는 서한문에서 자가 격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 특히 “자가 격리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는 물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조치” 라며 “자가 격리에 협조하는 것만으로도 강도 높은 방역에 참여하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도는 자가 격리 기간 중 생활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자가 격리자는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우리 이웃” 이라며 도민사회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다.

참고. 서한문

<자가격리에 협조해주시는 것이 바로 강력한 방역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통지를 받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일상이 통제돼 무척 불편하고 당황스러우시지요. 혹시나 감염된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정부는 23일 코로나 위기경보를 최상위로 격상했습니다. 한 두 사람의 방심이 지역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가격리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에 협조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강도 높은 방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2주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필요한 사항과 불편한 부분은 1대 1 자가격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에게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우리는 한가족”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예방 강화

- 외국인 업무 관련 부서 10곳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이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대응요령 등이 빈틈없이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 도 외국인 주민 관련 부서 10곳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외국인 대상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코로나19 예방수칙 13개 언어 번역본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배포
 - △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생활안전수칙 안내방송(영·중)
 - △ 자매·우호·실무 교류도시 대상 실무 연락체계 구축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노력 알림
 - △ 코로나19관련 도 홈페이지 외국어(영·일·중)페이지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
 - △ 고용센터 방문 외국인 대상 예방수칙 16개 언어 홍보물 배부
 - ※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1,465개 사업장 3,310명
 - △ 외국인근로자 쉼터 방역 및 자조모임(300여명) 대상 SNS 홍보
 - △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 및 홍보
 - ※계절근로자 체류현황: 21명(베트남16명, 중국1명)
-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했다.
-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 도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또한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등 협조가 중요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064) 710-2860
 특별자치행정국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064) 710-3820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채종협 평화대외협력과장 064)710-6250
 미래전략국 현경화 정보정책과장 064) 710-2340
 일자리경제통상국 양제윤 일자리과장 064) 710-3790
 일자리경제통상국 김명규 경제정책과장 064) 710-2480
 농축산식품국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064)710-3050

□ 외국인주민 현황

(2019. 12. 31.기준)

계	거소 신고 자	등록외국인 현황(명)										
		소계	방문 등거	거주	영주	결혼 이민	특정 활동	비 전문 취업	선원 취업	방문 취업	유학	기타
29,187	3,519	25,668	1,733	4,167	2,900	2,180	3,323	3,929	2,072	733	1,751	2,880

*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제외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외국인주민>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90일을 초과하되 국적미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적취득자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SNS 응원메시지 릴레이 캠페인 전개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고자 도 공식 SNS를 통해 응원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뿐만 아니라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의료진, 방역인력과 가족 등 모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도민 서로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다.
- 참여를 원하시는 도민은 도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페이지에 응원메시지를 남기고 본인 SNS계정에 공유하여 널리 알려주면 된다.

매체명	URL	비 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ppyjejudo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special_jeju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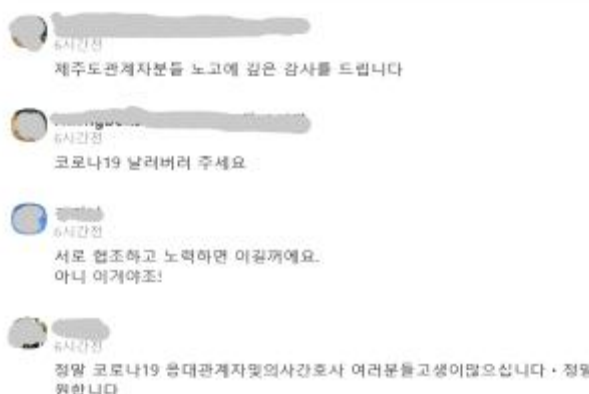
- 도에서 운영하는 도 공식 SNS에는 캠페인 시작 전부터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호인력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 카카오톡 채널은 개설 하루 만에 위기 극복 응원 댓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haen*****’는 “코로나19, 날려 버려주세요!”, 아이디 ‘김**’는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면 이길거예요. 아니 이겨야죠!”라며 극복 의지를 다졌다.
- 아이디 ‘한**’는 “정말 코로나19 응대 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 라고 남겼다.

- 아이디 ‘ha***’ 는 “오늘 하루도 도청, 관계기관, 의료진 분들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속히, 신
천지 교인 중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검사를 받게 해
주세요! 힘내세요.” 라며 철통 방역을 주문했다.
- 도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감염보호복을 입은 119구급대원 활동
소식에는 아이디 ‘la****’ 은 “마스크 하나도 답답한데 얼마나
덥고 힘드시겠어요..” 라고 격려를 보냈다.
- 한편, 제주도는 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매일 오전 11시 ‘코로나19 합동브리핑’ 현장을 중계하고 있다. 또
한 도 공식SNS를 통해 코로나19 일일 대응현황 등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공보관 미디어홍보팀 고영표 팀장 064) 710-2051

[관련 사진]

	
도 인스타그램 : 119구급대 감염보호복 착용	도 카카오톡 채널 응원메시지

‘고강도 방역’ 으로 안전 제주관광 지킨다

- 제주도-관광산업체, 코로나19 확산 차단 협력체계 구축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체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이는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함에 따라 ‘안전한 관광제주’ 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차단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도는 관광시설 종사자·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실내 관광지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 공영 및 사설 관광지 466개소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 부착과 함께 이용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요청하고 있다.
- 도는 방역과 관련 ‘범도민 위기 극복 관광산업협력분과협의회’ 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광협회는 업체별 상황대처 매뉴얼에 따라 1,065개소에 철저한 방역을 요청했다.
 - 도와 관광 관련기관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831개 관광업체를 방문해 제주관광 홍보포스터(1,800부), 감염 예방수칙을 담은 전단지(3,000매), 손세정제(1,800개)를 배부했다.

* 관광숙박업 420개, 휴양펜션업 105, 유원시설업 60, 관광이용시설업 89, 관광식당업 157.

○ 도와 관광 관련기관은 숙박업소 및 관광업체에 방역소독 살균제 3,450개와 손소독제 8,000개를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 한편 도는 관광사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관광기금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 (2. 27.현재 접수현황)

- 520건 797억 원(경영안정 517건/787억 원, 건설·개보수 3건/10억 원)

□ 강영돈 관광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제주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행정과 관광사업체가 하나가 되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문의 : 관광국 관광정책과 김재웅 과장 064) 710-3310

도, 정보접근 취약계층 시각, 청각언어 장애인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홍보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접근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감염증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제주도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청각언어장애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에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5일부터는 매일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의심사례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했을 때 실시간 영상통화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는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시각장애인협회, 농아복지관 및 농아인협회 등에 마스크 3,000개와 손세정제 1,500개 지원했다. 3월 중 2차 지원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발병 및 의심 시 행동요령을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1339콜센터 사용방법을 안내(KCDC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채널 문자상담 안내)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유선통화와 문자로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을 비롯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사전에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최근 해외여행 및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를 확인 후 의심사례자 정보를 취합해 자발적 격리를 진행하고,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복지관 등) 홈페이지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하고 있다.
- 제주도는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대응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내 시각장애인(4,193명)과 청각언어장애인(6,629명)은 모두 10,822명으로, 도내 등록 장애인 36,287명의 29%를 차지한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064) 710-4510

[관련 사진]



[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콜센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1339콜센터 이용이 가능한가요?

시각장애인 여러분은
상담원과 **음성(전화)**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9
누르고
24시간
1:1 상담 가능!

청각장애인 여러분은
상담원과 카카오톡 **문자(채팅)**로
월~금 09시~18시 상담 가능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언제 어디서나
1:1 상담 가능!

발행일 2020.02.20

<SNS 응원메시지 릴레이 캠페인 포스터 >



-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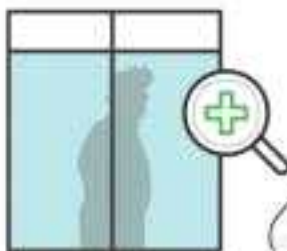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질병관리본부
KCDC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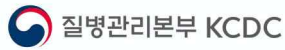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국민건강콜센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2 손등



3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6 손목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